

박 “한나라, 병역 비리 본당” 나 “의혹 투성이 박, 해명을”

서울시장 보선 D-8 … 후보검증 난타전 격화

野 ‘내곡동 사저’ 국정조사요구서 금주 제출

여야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검증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서초구 내곡동 사저 입주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또 다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 위원회에서 범야권의 박원순 후보를 겨냥, “호적 쪼개기를 통한 병역특혜, 작은 할아버지의 강제 징용, 부인 회사의 무허가 건설, 서울 법대 허위 학력 등 의혹 투성이”라며 “구체적, 객관적 사실로 의혹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 피해하고 있다”고 침략탄을 날렸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박 후보는 노

무현 전 대통령이 FTA를 추진할 때부터 졸속 협상 반대한다며 시국회의에 참석했다”며 “박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 본인 입장은 이야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박 후보가 최근 안철수 교수의 협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협찬으로 처리하여 한다면 서민은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면서 후보 간의 주가 TV토론을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나경원 후보가 맹주격을 떨이며 사설상 판세가 역전됐다는 판단 아래, 박원순 후보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서초구 내

곡동 사저 건립을 전면 재검토 방침도 서울시장 선거전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사저 건립 ‘전면 재검토’ 지시는 사저 부지 매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신속한 대응책을 선택해 논란 차단에 적극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저 이전 재검토 결단으로 돌아섰던 민심도 상당 부분, 누그러들지 않느냐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 시키기로 하고, 그 수순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건립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내 제출키로 했다.

정장선 사무총장은 “내곡동 문제의 백지화와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 및 예산전용은 별개의 문제”라며 “백지화를 하더라도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필요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정권심판론’ 집중 부각 對與公세 강화 박원순 측면지원

증반전에 돌입한 서울시장 보궐 선거 판세가 초반형 흐름을 보이자 민주당이 박원순 후보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

17일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및 한나라당 서울시장 10년 심판론’을 부각시키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섰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와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맹공을 가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민생은 뒷전이고 뇌임 후 사저 준비에 나서고 있다”며 “그것도 국고를 축내면서 온갖 의혹에 휩싸인 채 이런 일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아우성인데 측근은 비리를 덮는 이런 상황을 시민이 그냥 놔둘 수는 없다”며 “특권과 반칙의 사회를 거부하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열어가고자 하는 새로운 물결이 결국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정 10년에 대한 심판과 평가는 선거의 본질이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근거 없는 흑색비방과 중상모략을 자행한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나경원 후보 지원 등 재보선 선거전에 적극 뛰어든 데 대한 경계심도 나타났다.

이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가 나 후보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박근혜 효과’는 네거티브에 묻혀지고 있다”며 “박 전 대표가 네거티브에 합류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침묵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가 지난주 부산 동구청장 재선거 현장을 다녀갔지만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 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다”며 “박 전 대표의 부산 방문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항의하는 사태에도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단체들이 가을산행, 단합대회, 창립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거나 금품 혹은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특별단속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가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무료 또는 싼값의 경비만 받고 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에 경품·기념품을 찬조하는 행위 ▲각종 모임·행사에서 축사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한 행위 등이다.

/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휴식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 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게 달하고 있습니다.

● 비변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소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자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해 17일 유감을 표시하고 전면 재검토 쪽으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김인종 경호처장이 사저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논란이 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이대통령, 내곡동 사저 백지화

퇴임후 논현동 자택으로…김인종 경호처장 사의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서초구 내곡동 사저 입주 계획을 백지화하고 퇴임 후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임 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별도로 만나 이런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의견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를 시지했다”고 답변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한 대로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임 실장

을 비롯한 참모들로부터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한 여론동향 등을 보고받고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임 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별도로 만나 이런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한 대로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새로운 사저 파동의 책임자인 김 처장의 경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경남 함양 찾은 박근혜

‘김두관 바람’ 차단 주목

10·26 재보선 지원에 나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7일 경남 함양군을 찾았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낮 당시의 최원식 함양군수 후보와 함께 함양 종합상설 시장을 방문, 주민 및 상인들과 만나고 이어 시장 내 식당에서 이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함양은 영남권이긴 하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으로선 고전한 지역이다. 지난 3번의 군수 선거에서 단 한 번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을 정

도다. 이번 선거도 김두관 경남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윤소숙 윤학송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가 이번에 함양을 찾은 것도 이 같은 여건들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선 박 전 대표의 득표력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다.

박 전 대표는 이어 18일에는 서울 시장 선거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의 질반 이상을 서울 지원에 할애하고 있는 셈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신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가능)

광신구 송원동, 니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전원주택, 연수원, 공동주택, 기타)

광신구 양동, 용성지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약4800평, 건물을 있음, 매매가 13억원

▶ 준주거지역(병원, 시설,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소간도로변, 지하철역근처 대지 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풍암동, 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20만원 매매가 13억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 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 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광신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 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 8억

<급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방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수완지구 상가 분양 전문

학원·병원·한의원·고급식당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 가능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즉시 입주 가능 시비없음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건축시공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도시형 주택전문)

• 수익성상가

• 안전한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활영

설계·건축·분양·임대